

기술개발과 신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신포장문화를 개척

인간존중과 기술개발의 경영이념



- 1968.3 삼민화학공업사 창업
- 1973.8 서울 성수동 공장준공
- 1973.9 삼민특수인쇄사 개업
- 1974.5 삼민화학공업사, 삼민특수
인쇄사 합병
- 1979.3 인천부평공장준공
- 1979.11 부평공장본사이전
- 1980.10 공압출 다층필름 제조1호기
설치
- 1984.3 공압출 다층필름 제조2호기
증설
- 1987.7 반월 인쇄, 가공 공장 준공
- 1989.5 공압출 다층필름 제조3호기
증설
- 1992.7 공압출 다층필름 제조4호기
증설
- 1992.8 알루미늄 진공증착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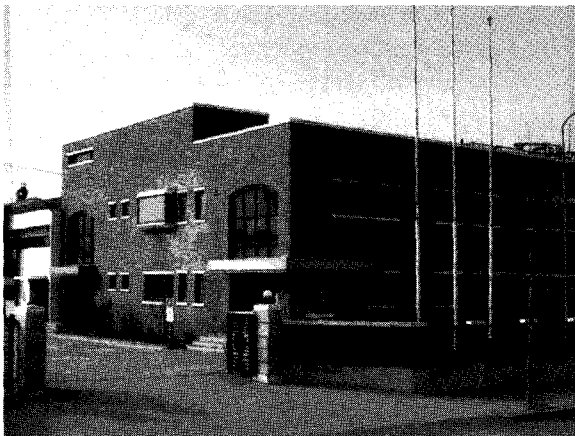
포장 그 자체가 아름다운 제품이 라는 인식아래 지난 27년간 신기술 개발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삼민화학(대표 임동준)은 인간 제일주의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새로운 포장재의 개발과 포장기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의 완벽을 추구하고, 남다른 의지와 정성으로 미래의 포장문화를 개척하고 있다.

“인간존중과 기술개발은 바로 삼민의 경영이념이며 세계로 향한 집념일 뿐만 아니라 인화단결, 창의개발, 책임완수를 사훈으로 시시각각 부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직원 상호간의 토론과 이해를 통하여 품질의식, 문제의식, 개선의식을 촉진시켜 최종 소비자가 곧 우리 라는 인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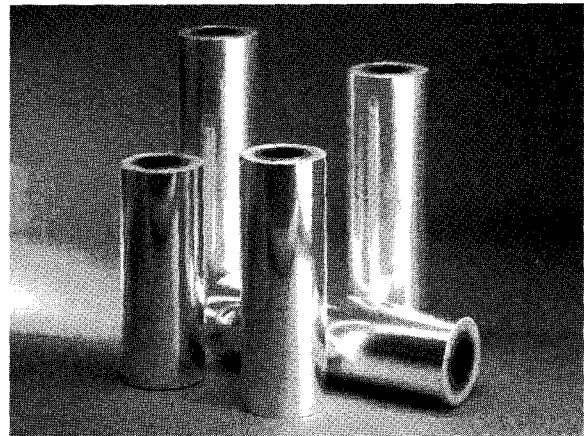
라고 황승연 차장은 말했다.

공압출 다층필름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 온 삼민화학은 APC(Automatic Profile Control)설비 등 최신 자동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이미지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프로필렌계 필름 이외에 특수 변성수지를 적용시킨 공압출 필름을 생산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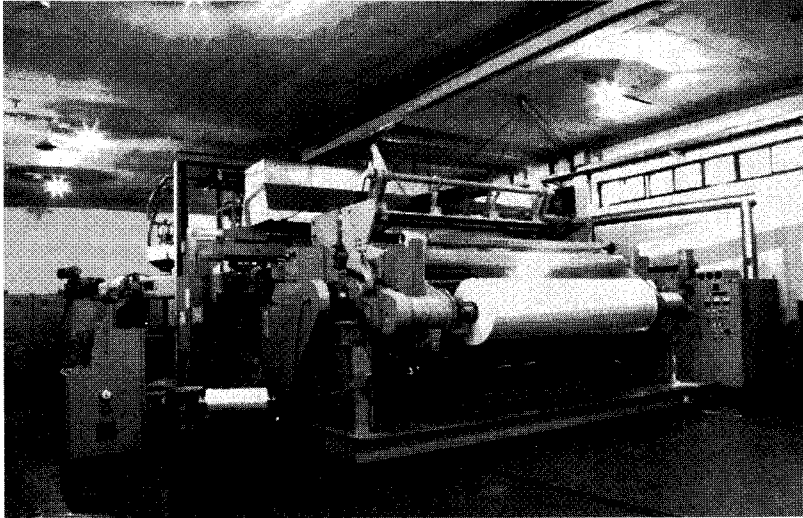
특히 삼민화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SSF필름은 공압출 다층필름의 대명사로서 뛰어난 가공적성과 안정성, 저온 열융합성이 우수해 자동포장 기계로 고속포장이 가능함에 따라 제과, 제빵,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필름이다.



▲ 1987년 7월에 준공된 인쇄, 가공 중심의 반월 공장 전경



▲ 공압출 다층 필름의 대명사인 SSF필름



▲ 공압출 다층 필름 제조기

연포장 종합적 성격 내포

“삼민화학은 연포장의 종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필름(SSF, VMSSF, MOPP, Retort, Nylon)과 인쇄가공 등 다방면의 연포장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많은 중소 연포장업체가 문을 닫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 삼민화학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더욱더 신기술과 제품개발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삼민화학의 살림꾼 역할을 하는 황 차장은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의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삼민화학이 지금까지도 연포장업계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해 온 이유를 자평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250억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작년 무역의 날 백만불 달성 수출탑을 수상했을 정도로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고 많이’가 아닌 ‘조금씩 알차게’가 바로 저희 삼민

이 추구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삼민화학의 총체적인 운영형태는 생산기준 규격에 준하여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보다 차원 높은 기술을 찾아내고 적절한 물류이동관리를 통하여 생산코스트를 절감하고 있는 생산관리 체계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현장중심의 품질관리를 목표로 과학적

관리기법과 기자재에 의한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품질관리체제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존중과 기술개발

“다른 연포장업체에서도 우리 제품을 사용할 정도로 품질과 기술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꺼낸 임진환 차장의 안내를 받아 인쇄 및 후가공을 하는 반월공장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에 도착해 점심을 먹은 후 공장시설을 둘러보는 중에도 한창 수출물량을 만드느라 인쇄기 및 후가공기계가 쉴 틈이 없었다.

더위와 싸우고 있는 공장직원과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소리를 뒤로한 채 알루미늄 진공증착과 공압출 필름생산 라인이 있는 부평공장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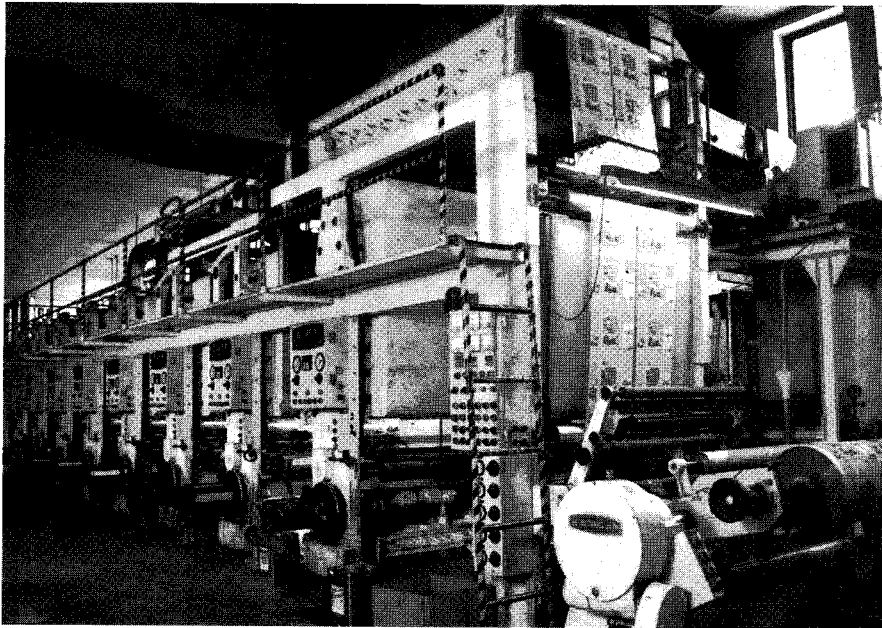
“공압출 다층 필름은 용도에 따라 특정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 이중의 수지를 여러대의 압출기로 동시 압

[표1] 주요생산품목

품 목	두께(MY)	특성및적용분야
SSF	20MY-80MY	저온실링성, 자동포장기계 적성우수, 일반포장, 제과, 제빵, 병과 및 식품용 등.
SSR	60MY-80MY	가압고온(120℃)에 견디며 저온내충격성우수. 가열, 가압 살균 및 진공 포장식품, Retort Pouch 식품, 장기보존식품 등.
SSFVM	20MY-30MY	알루미늄증착필름으로 가스 및 수증기 차단성이 뛰어나 내용물 변질방지 가능. 라면, 스낵, 병과 및 특수식품 등.
MOPP	20MY-40MY	일축(종방향)연신에 의한 인열 및 개봉성 양호, 인장강도 양호, 양면 인쇄 가능. 껌포장, Twist포장, Tear Tape용 등.

[표2] 증착설비 소개

내 용	특 성
작업가능폭	Min 700m/m-Max 1,650m/m
생 산 량	400,000M/Day
속 도	Max 12M/Sec
증착균일도	±5%이내
증착두께	200Å~800Å°
증착가능제품	CPP 20MY-80MY, OPP 20MY-80MY, PET 12MY-75MY, Paper 18g-80g, Hot Stamping Foil, Spangle, 기타산업용 자재



◀ 반월공장에서 가동중인 그라비아 인쇄기

출하여 제조된 필름을 의미” 한다며 “이것은 열접착성 부여, 가스 차단성 부여, 표면개질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임 차장은 설명했다.

부평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나기성 이사는 “진공증착이란 고진공 상태에서 알루미늄을 가열 증발시켜 기재표면에 응축 시킨 후 피막을 형성하여 각종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필

름의 단점을 보완하고 내투습성과 가스배리어성의 증가로 상품의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을 차단하고 금속광택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최신형 삼민화학 진공증착 설비는 고진공(2×10^{-5} Torr), 극저온(-130°C)상태에서 가공이 이루어짐으로써 뛰어난 광택 및 알루미늄접착성을 지니며 안정된 Wet Tention(증착가공 2개월 이내 표면장력 40Dyne이상)을 유지함으로써 후가공 적성에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7년의 장인정신

1994년 매출액은 250억원, 종업원수는 163명인 삼민화학!

27년간의 기술축적과 노력으로 이룩해온 삼민화학의 장인정신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의 보호, 장기보존 및 운반

수단이라는 포장 본래의 목적추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삼민화학의 가공시설은 연포장의 모든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제과, 식품, 제약, 제빵 및 기타 산업체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모든 영역의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고 포장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성력화, 자동화 및 고속화되어가는 포장기계 적성과 맞는 포장재 개발에 연구하고 있다.

올해 삼민화학(주)은 환경문제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포장산업은 바로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변준섭 기자



▲ 21세기 신포장문화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모든 산업에 있어 기술은 바로 새로움에 있다.”

포장산업의 계열화보다는 분업화로……

요즘 근황에 대해.

삼민화학(주), 동성산업(주), (주)위성스타렉스 경영에 몰두하고 있어 포장협회 부회장으로서 직임에 부족한 점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포장산업에 27년간 몸을 담아 왔습니다. 한국의 포장산업 걸음마단계 때부터 시작했으니 지금의 연포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감으로도 파악할 정도입니다. 라미네이팅으로 시작을 해 74년도에 한국 그라비아원조라 할 수 있는 삼민특수인쇄산업을 인수해 삼민특수인쇄사로 합병하여 같은 해 삼민화학공업(주)으로 법인화 했습니다.

현 한국의 포장산업 문제점은 무엇이라 봅니까?

초창기 보다 기술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소재의 다양성으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한국은 소재의 단순성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개발되리라 확신합니다.

두번째로 시장의 협소성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 저마다 가격파괴니 하며 서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포장산업의 발전이 정체되는 요인이지요.

끝으로 일본은 포장산업을 계열화하지 않고 분업화시키고 있는데 한국은 제과회사나 식품회사의 포장산업이 계열화되어 있어 기술의 발전이 안되고 있다 봅니다.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환경법규는 존재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법규가 한국의 실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진국형의 법 도입은 오히려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오히려 선진국의 기술과 환경적 사례는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 자연적으로 분리·수거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정책과 보이기 위한 분리수거는 오래 못가거든요. 예전에 폐지의 경우 왜 자연적으로 분리수거가 됐겠습니까? 돈이 됐기 때문에 수거가 가능했고, 즉 돈벌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쯤 생각해 볼



▲ 삼민화학공업(주) 임동준 사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의 삼민화학에서 생산되는 각종 필름은 재생되는 것과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포장산업의 업체들에게 해를 주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일괄처리 공정(분리·수거·소각·처리)으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포장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경영철학이 있다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당일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과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누구도 하지 않은 분야에 개척정신으로 개발해야 되고, 직원들을 항상 인격체로서 대우함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SSF(삼민스페셜) 3층필름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기술을 도입해 개발했습니다. 바로 타사에서 개발하지 않는 분야를 계속 노력하며 연구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이에따른 기계의 제작에도 몰두해야 겠지요. 수입에 의존만 하는 한국형 산업이 아닌 저희 나라 자체적으로 개발되어진 기계와 생산품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